



공동체 소식



대림 제2주일

모든 위로의 샘이신 아버지 하느님, 지상의 나그넷길을 걷는 저희에게 새 하늘 새 땅을 약속하셨으니, 오늘 주님 백성의 마음을 밝히시어, 영광스러운 주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순수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12월 기도지향

- 정준구 파비아노, 박혜정 카타리나 가정
- 고영방 스테파노, 김명은 안젤라 가정

대림시기

이번주일은 전례주년중의 하나이며,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구세주이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회개와 속죄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판공성사

- 1구역 : 12/6 오후 6시, 김정원 베드로 덕
- 2구역 : 12/19 오후 7:30 홍순익 마르티노 덕
- 3구역 : 12/13 오후 7시 김병철 베네딕도 덕

Gerard Alba 신부님 첫 미사

12/7(일) 중심미사 때 Gerard Alba 신부님의 첫 미사와 강복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많은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탄 대축일 꽃봉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제대 꽃을 봉헌 받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 봉헌은 전례부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맨하탄 공동체 미사

- 일시 : 12/13(토) 오전 11시
- 장소 : 성 토마스 모어 성당

기타

- '매일미사' 책 신청 받습니다. 배송료 포함, 1년 구독료 60불입니다.
- 캔사스 한인회 주최, 송년잔치가 12/14(일) 오후 5:30에 Marriott Hotel에서 있습니다. 티켓은 한 장에 50불입니다. 한인회 발전을 위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월 로렌스 공동체 미사는 쉽니다. 분당 성탄 전례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마 침
96	210	163/166	481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정병훈 보니파시오	정예찬 미카엘
	정준구 파비아노	차서은 세라피나
차주	안광민 야고보	김준영 요셉
	이우영 가브리엘	이원준 요한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박혜정 카타리나	김태중 예레미아 김시연 엘리사벳
차주	김주연 세실리아	박재천 알베르토 김계숙 헬레나

애찬 봉사자

금주	박혜정, 정연숙, 장남순
차주	최선윤, 김계숙, 조경희

헌금 봉사자

금주	백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차주	이우영 가브리엘, 박희영 카타리나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11/30	90명	315불	900불
류기범, 이우석, 김태중, 고영방(총 4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대림 제2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며 깨어 기다리는 자세를 갖추도록 촉구하십니다. 대림 시기는 기대도 희망도 없이 단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바라보는 때가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무엇보다도 회개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은총을 청합시다.

그림묵상

메시아를 고대하며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주님께서 성탄축일에 오시고,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오시며,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 영광스럽게 오실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물로 세례를 주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권고합니다. 성령과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메시아를 고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며 희망입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서 : 이사40,1-5.9-11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닦아라. >



주 님 저 희 에 게 자 비 를 보 이 소 서 또 한 저 희 에 게 구 원 을 주 소 서

○ 주 하느님 말씀을 제가 듣고 싶사오니 당신의 백성과 성도들에게 정녕 평화를 말씀하시나이다. 당신을 두려워하는 이에게는 구원이 정녕 가까우니 당신의 영광이 우리 땅에 계시게 되리라.◎

○ 자비와 충성이 마주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함께 입맞추리라. 땅에서 충성이 움터 나오면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 주님께서 행복을 내려 주시면 우리 땅은 열매를 맺어 주리라. 정의가 당신 앞을 걸어 나가면 구원은 그 걸음을 따라가리라. ◎

제 2 독서 : 2베드3,8-14
<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복 음 : 마르1,1-8 <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

세 마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우리가 오늘 듣는 제1독서는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는 일반적으로 세 부분, 제1이사야(1-39장), 제2이사야(40-55장) 그리고 제3이사야(56-66장)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들은 이사야 40장은 제2이사야에 속하는 부분으로, 유배시기에 놓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진 예언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사야 40장의 시작은 유배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 무엇보다 하느님의 위로를 전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국을 떠나있는 그들에게 다시 하느님께서 주신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대림시기의 둘째 주일에 위로와 희망의 소식을 듣습니다. 마치 기다림이 보속과 절제, 회개와 통회로 점철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것은 위로의 시기이자 희망의 시기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 2서의 말씀 역시 비슷합니다. 종말에 대해 말하면서 그때에 있게 될 심판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서도 역시 위로의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종말과 심판에 대한 언급에서도 강조되는 것은 회개를 바라는 주님의 원의입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은, 종말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는, 곧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의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다리고 기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것이지만, 이 시간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가능성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되돌아보고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의미에서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자세는 비슷합니다.

마르코 복음의 시작에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하느님 역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기 위해 ‘준비’하셨다는 점입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을 인용하는 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준비할 세례자 요한을 보내셨다는 것이고, 그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실천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의 사명은 예수님의 업적을, 그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 역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나의 삶’을 돌아본다는 것이 항상 쉽고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다른 이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성찰이나 회개라는 말은 조금은 구시대적인, 또 손해보는 듯한 말처럼 들립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화려함만이 아닌 내적인 아름다움과 굳건함 역시 필요합니다. 대림시기는 그동안 마음 쓰지 않았던 우리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능성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권주일이기도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 누구에게나 당연히 주어진 권리입니다. 나의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이들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 서울대교구 허규 신부 -



주춧돌

제 2 편 은총의 샘인 성사와 기도

제4장 고해성사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요한 20,22-23).

【주석】

숨을 불어넣으며 : 그리스도의 이 행동이 하나의 새로운 창조, 하나의 참 부활임을 시사한다(주석 성경, 신약, 435). ‘숨’은 성령을 상징한다. ‘영’(靈)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어 ‘루아’(Ruah)의 번역으로, 본래 숨결, 공기, 바람 등을 의미한다(가톨릭교회교리서, 691항).

성령을 받아라 : 이 성령은 이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과 일치 속에서 드러낼 구원의 힘이 되실 것이다(상동; 요한 15,26-27 참조).

용서해주면 : 용서하는 권한은 하느님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제자들에게 주신다(주석 성경, 신약, 435 참조).

【설명】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사람들, 특히 개신교 신자들은 가톨릭의 고해성사를 비판하기도 한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사실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하느님의 권한이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아들이로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셨고, 사제가 고해성사를 집전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사하는 권한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제는 고해소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한다.

【교회의 가르침】

▶ 하느님께서만 죄를 용서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마르 2,10)고 말씀하셨고,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마르 2,5) 하시면서 이 신적 권한을 행사하신다. 나아가 당신의 신적 권위로 이 권한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당신의 이름으로 행사하게 하신다(가톨릭교회교리서, 1441항).

▶ 고해성사는 영혼의 목욕탕입니다. 최소한 매주 한 번은 고해성사를 보아야 합니다. 영혼들이 일주일 이상 고해성사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피에트랄치나의 성 비오 사제).

▶ 청소를 해 둔 방은 비록 사용하지 않았다 해도 일주일 뒤에 가 보면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기 때문에 다시 청소해야 합니다(피에트랄치나의 성 비오 사제).

- 『신앙생활 보감』,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3 -